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

허 남 춘**

강 소 전***

국문요약

이 논문은 제주의 민속 문화를 자원으로 하여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미래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주의 마을 만들기 현황과 양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중요 자원으로서 민속 문화의 의미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민속 문화가 드러내는 애로점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 문화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가능성과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시론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에는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의 자원 가운데 민속 문화는 역동적인 소재이다. 그 역동성 속에서 사람들은 한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왔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된 것이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었다. 민속 문화의 역동성은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속 문

* 이 논문은 지난 2009년에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마을만들기 보고서로 제출한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틀을 새롭게 모색해 본 것임을 밝힌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화를 발굴하고 가꾸어 가는 마을 만들기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의 심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애로점도 분명히 있다. 민속 문화를 마을 만들기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인내력과 합의가 중요하다. 민속 문화를 활용함으로써 경제효과 및 변도의 마을 만들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속 문화는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 민속 문화, 마을 만들기

1. 머리말

민속과 신화 등 유·무형의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제주의 자랑이다. 제주가 중세화와 근대화에 뒤졌기 때문에 전통이 보존될 수 있었고, 제주의 문화적 전통이 외래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육지는 많은 것을 버렸다. 근대화가 역사의 진보라고만 믿었던 탓이다. 이제 제주는 후진이 선진이 되는 기회를 맞았다. 뒤늦게 근대화·산업화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탈근대적 사고를 확산시켜 나가야 제주가 선진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제주, 한국, 동아시아의 전통과 서구의 외래를 적절히 결합시켜야 미래 전망이 가능하다. 문화를 토대로 한 산업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 제주의 마을 만들기도 이런 합의 속에서 가능하다.

필자는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함께 그동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앞장서 왔다. 2005년부터 지역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시작은 일도2동 마을 만들기였다. 삼성혈과 오현단 주변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문화해설사를 교육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 교육을 기획하였고, 마을 골목의 자투리땅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하면서 마을 골목 가꾸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삼양동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함께 수행하였다. 검은 모래축제, 선사유적지, 원당봉 고려 유적지, 화북진성, 환해장성을 결합한 문화관광단지 구축을 제안하였고 수원지, 해수욕장 모래 유실, 유원지 지구 10만평 공유수면 매립의 문제를 들어 환경보존 의식을 공유하였다. 아이들에게는 동네 바로 알기 역사기행, 동네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도시와 농촌의 접점지역의 마을 만들기 모델을 구상해 보았다.

2007년에는 용담 2동에서 이야기가 담긴 역사 문화 관광지도를 작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왔다. 용두암, 고인돌, 내왓당 무신도, 서자복, 용담동 제사유적, 제주 향교를 잇는 역사 유적 안내 지도와 한두기, 어영마을, 성화마을, 용화마을, 용문마을, 월성마을을 잇는 자연마을의 지도를 완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긍심을 갖고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 이르는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동백마을과 연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는 제주도 관광 개발과 전혀 무관한 곳이고 특별한 자원이 없어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 마을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설촌(設村) 300년을 맞아 마을사람이 떠나고 침체된 분위기가 흐르며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300년을 준비해 보겠다는 심정을 밝히며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다. 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마을의 브랜드인 동백 숲을 브랜드로 내놓고 싶다고 했다. 동백마을 지도자와 제주참여환경연대와 한라일보가 여러 번에 걸친 기획 회의를 하고 수행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다.

2008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기까지 동백을 브랜드로 삼아 자연체험 코스를 개발하고, 역사체험을 가미하여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동백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동백꽃과 관련된 문학과 그림과 노래를 모아 전시하고, 동백기름을 자원화하고, 동박새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농업과 관광의 연계, 농업과 문화의 만남, 상품 디자인과 뷰티 콘텐츠의 개발 등 농업경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종을 이루기도 하였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 노력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역시 지역 전문가의 마을 만들기 최종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고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문화와 산업의 만남을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옳다.

과거 '새마을 운동'과 작금의 '마을 만들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새마을 운동이 관 주도에 의한 타율적 강요였다면 마을 만들기는 자율적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 전통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통을 중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새마을 운동이 도시화와 근대화를 추동했다면 마을 만들기는 농어촌의 고유한 모습 지키기가 중시되어야 하고, 그곳의 역사·민속·문화를 보존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파탄이 난 우리의 생활을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농어촌으로부터 찾는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농어촌의 존재의의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화, 패스트푸드화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출발점을 농어촌으로부터 찾고 농어촌이 슬로시티, 슬로푸드, 로컬푸드 운동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과거 농촌공동체로의 복귀를 꿈꾸어서도 안 된다. 과거 혈연·지연 공동체를 문화·문명 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농

업과 어업의 1차 산업 위주에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을 추구해야 한다. 개인 소유와 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공동 소유와 분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과 산업이 연계되는 쪽으로 진화해야 한다. 고유 전통문화만이 강조되었던 과거를 벗어나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경제학적 마인드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적 마인드로 마을 만들기에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변화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이나 최근의 ‘뉴제주운동’은 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지자체 단체장의 역량으로 선전도구화하고 있는데, 이런 광기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 마을의 자연과 문화적 자원을 차분히 파악하고 무엇을 브랜드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마을 주체들 간의 유대와 공동체의식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 그런 뒤에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역 공동체원끼리 즐기고 공유해야 한다. 문화적 쾌감이건 경제적 성과건 함께 즐기고 공유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의 관건은 주체(主體)의 관심과 흥(興)과 신명(神明)에 놓여 있다. 우리가 언제 성취를 했고 크게 성공했던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발적으로 흥이 나서 신명나서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하였다(조동일, 2008: 20). 조동일 교수는 “한국인은 어느 때 열심히 일하는가? 신명이 나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면서 신명에 대한 대답을 탈춤 연구에서 찾았다. “당신은 언제 그토록 신명나게 일했는가.”를 고민하며 인문학적 마인드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시도해 본다.

2. 제주의 마을 만들기 현황과 양상

21세기 들어 전국 각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날 일방적인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서 '삶의 공간으로서의 마을(또는 지역)'이 획일화되고 피해해졌음을 인정하여 반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시나브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이질감은 더욱 심해졌다. 게다가 각지에서 전통적인 공동체는 날로 붕괴되고, 새로 생겨나는 공동체는 '전체'의 삶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모든 지역적 범주에서 서로 재충전을 위해 탈출을 꿈꾼다.

사정이 이러하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전 시기와는 다른 마을(지역)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발상을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모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삶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여겼다. 단순한 거주공간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각각의 마을마다 개성 있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경험에서 자극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사례에 비해 아래로부터 시작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 그 시행에 여러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날 획일적인 개발 위주의 정책에 비한다면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며, 노정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여 보완한다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제주에서도 수년 전부터 각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

어 보인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무래도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농·어·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마을을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서도 중복선정임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적지 않은 수가 나름대로 ‘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2가지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 두고 있다. 첫째, 마을 만들기 관련 각종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두었다. 각 시행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지원·관리되는 것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여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비교적 최근에야 마련된 것이니, 그 시행과 적용과정에 대한 점검은 다소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앞으로 취지대로 잘 운용되어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9년 초에 제정된 조례는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지원조례> 제정 2009. 01. 07 조례 제445호 참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제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주민자치역량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마을’이라는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에 활용되는 자원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무궁무진하다.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창작물, 인적 자원 등이 모두 자원으로 이해되며,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하고 강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상으로 보자면 마을 만들기는 소위 내방객(來訪客)보

다는 거주자 중심 사업이며, 일회적인 특정 목적사업이기보다는 전방위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특정 자원이 아닌 마을 자체가 곧 자원임을 표방하고 있다. 곧 마을 만들기는 그 속도가 비록 느릴지라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이라는 목표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진정한 자치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지원내용과 방법을 보면 아직 조례가 제시한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적어도 자립형 공동체의 개념을 경제적 자립 중심으로 좁게 한정짓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8년 9월에 마련한 <특별자치마을만들기 마을장기발전계획 수립 지침>을 살펴보자.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마을 장기발전 계획서>라고 해서 마을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사업계획을 제시하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향후 마을 만들기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이 <마을장기발전계획사업>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을의 장기발전 계획서는 크게 마을 여건과 장기발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마을 여건에서는 마을의 전체적인 현황을 적시하라고 하였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소득 연계가 가능한 자원을 중심으로 하라고 제시하고 있는 형태이다. 즉 마을자원의 선택과 강조를 소득창출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지향점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조례에서 밝힌 목표처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진흥시키는 데에 경제적 척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자원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소득창출로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당장 소득 연계가 되지 않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차 소득 연계를 가능케 하는 기저(基底)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자원은 단지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소재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마을장기발전 계획은 지나치게 모호하다. 제시된 양식에서 마을이라는 글자만 빼면 어느 사업의 계획서와 다를 바 없다. 마을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를 수 있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을 수 있어 모든 마을의 재창조 사업을 행정 편의적으로 획일화할 수는 없다. 게다가 농·어·산촌의 지방현실을 생각할 때, 마을장기발전계획에 적시해야 할 내용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감당하기도 힘들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움직임이 적고 소외받는 지방의 현실에서 멋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온전히 마을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다방면에서 적절한 컨설팅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방과 농·어·산촌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계획서 양식을 고민해야 한다. 투자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 같은 딱딱한 단어에 주민들이 주눅 들거나 염려하는 일을 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마을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적어도 21세기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장기발전계획이라면 마을자원을 잘 다룰 수 있는 세심한 계획서 양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으로서 마을장기발전을 다루는 계획서 양식은 공통적이고 획일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마을의 자원을 다루는 대목에서는 해당 마을의 사회문화적 감수성이 충분히 깃든 세심하고 창의적인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아직은 출발 단계라 미비점이 많이 있으리라 짐작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을 자원을 다루는 매뉴얼 등을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전자의 마을 여건이 마을의 자원을 지나치게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한정적이고 좁은 시각을 드러내었다면, 후자의 장기발전계획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느 사업계획서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 만들기 계획서라면 실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진정한 자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원은 삶의 문화 전반에 걸쳐 있다. 일반적인 마을 주민들의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상 ‘민속 문화’라 할만하다. 여기서 민속 문화는 넓은 시각에서 역사, 민속, 생태를 포함하며, 갖가지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왔던 흔적이다. 마을의 자원이 충분하니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나, 역시 관건은 어떻게 발굴하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민속 문화를 활용해야 마땅하다. 그간의 사업에도 일부분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더욱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제주는 한국 내에서도 그 문화가 독특하다고 인정하는 곳이기에 더욱 그렇다. 외지 방문자들이 다른 곳을 향하려 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를 찾아오는데 적극적으로 이에 대답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의 민속 문화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민속 문화의 중요성과 마을 만들기

근래에 실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어·산촌 지역이 주요 대상임을 생각해 볼 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민속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일회적인 체험활동, 대부분이 현금작물인 특산물에 해당 마을 민속 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마을 자원으로서의 민속 문화는 마을을 찾아오는 내방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늘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더없이 중요한 콘텐츠이다.

우리보다 먼저 마을 만들기를 전개해 본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마을 만들기’(마치즈くり まちづくり)에 대한 선구적 경험을 일찍이 설파한 다무라 아키라(田村明)는 마을을 만드는 데에는 기존의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지역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며 생활하고 있는 자리를 재인식하여 지역에 맞게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매력적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관계를 맺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기본이라며, 남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바람직한 ‘마을’을 이룰 수 없다고도 하였다. 주민은 마을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며 마을을 만들 책임을 지닌다는 자각의 표현이라는 것이다(다무라 아키라, 2005: 31).

마을 만들기의 ‘만들기’란 토목, 건축과 같은 물적 정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마을을 움직이는 시스템이나 재정, 자치조직, 시민의식 등 소프트웨어 면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다무라 아키라, 2005: 32). 즉 마을 만들기 방법의 구조에는 사회의식이나 생활양식, 운영방법, 경제/사회구조, 정치/행정구조, 제도 등에 관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측면도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이 하드웨어를 결정한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구조에서는 그러한 수준의 하드웨어밖에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한다(다무라 아키라, 2005: 65).

한편 다무라는 마을 만들기의 실천은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지역의 가치발견은 먼저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즉 살기 좋은 마을이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곳이다. ‘살아서 좋았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마을 만들기는 시작되지 않는다. 가치의 발견이라는 것은 주민이 지역과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가치의 요소로 (1)기상, (2)자연, (3)인문적 자연풍경, (4)시설물, (5)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와 이동물, (6)이벤트, (7)경관, (8)분위기, (9)인간, (10)음식물, (11)특산물 및 지방산업, (12)이야기 및 사건, (13)독자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런 지역가치를 대분류하면, (1)풍토적 가치(기상, 자연 등), (2)역사적 가치(유산, 사건, 이야기, 기억 등), (3)사람의 행위적 가치(사물, 일, 생활, 조직, 이벤트 등)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다무라가 이해한 ‘마을 만들기’는 풍토와 역사가 기본이 되며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위에 사람들의 생활을 추가하여 한층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다

(다무라 아키라, 2008: 67~74).

다무라가 경험하고 제시하는 내용들을 다시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에는 삶의 문화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만으로 마을을 새롭게 창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삶의 문화가 하드웨어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인식이다. 획일적 마을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삶의 문화이자 사실상 민속 문화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심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관심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다.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결합은 그 자체로 마을의 고유성을 드러내준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심신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온 민속 문화이기에 공동체의 형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낼 수 있다. 그 어떤 다른 콘텐츠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에 용이하고, 마을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고 전수하게 만들기도 한다. 민속 문화를 잘 기억하는 노년층과 젊은이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다. 근대화와 산업화시기를 거쳐 오면서 그동안 자원으로 인식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자신의 마을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막연히 느꼈던 자괴감에서 벗어나 주위의 사물을 소중히 인식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마을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는 이러한 민속 문화가 사실상 ‘마을의 보물’로 다가온다. 그 보물을 잘 가꾸고 오늘날의 삶 속에서 되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볼거리이자 환경친화적인 소득창출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오하라 가즈오키(大原一興)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오하라는 마을 만들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코뮤지엄은 그 존립기반을 영역=지역에서 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마을 만들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지역 상황에 맞는 창작행위라고 한다. 지역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대화로 잊혀 온 마을 만들기 본질을 에코뮤지엄이 재인식시켜 준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에코뮤지엄의 현대적 의미로 ‘자기 찾기’의 정체성 확인, ‘네트워크’ 관계맺음의 중요성, ‘커뮤니티’ 지역 만들기 학습을 들었다. 오하라는 이미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하였다(오하라 가즈오키, 2008: 81~84).

마을 만들기에 민속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속 문화는 억지스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민속 문화 전승의 단절로 인해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세대 간의 격차나 이질감은 충분히 회복가능하다. 교육과 전승의 인프라를 갖추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 문화는 옛일을 기억하는 마을 원로들만의 향유물도 아니다. 해당 마을의 풍토와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평생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도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나 그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히려 민속 문화에 대한 탐구는 마을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 게 더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되면 젊은 세대들이 마을을 떠나는 이유도 줄어든다. 모든 것이 물질적 자본으로 환원되는 현실이지만 마을의 누구나 한가한 여가를 꿈꾸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마을의 자랑거리와 자신을 일체시켜 다른 이들과 구별 짓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여전하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는 마을 민속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은 이미 보물로 가득 차 있으니 잘

다듬고 가꾸어 일상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게 고민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세계적인 마을이 될 수 있다. 마을에 존재하는 보물의 가치는 그 수량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민속 문화를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재호의 견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어떤 민속이 그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곱 가지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둘째, 지금도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민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하거나 참여하게 한다. 넷째, 체험프로그램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거나 공동체 내부에 갈등을 유발시키면 안 된다. 다섯째, 외부인의 관점으로써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어떤 사안이든지 반드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한 가지의 체험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수준의 운영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재호, 2008: 30~32).

이를 보면 어디까지나 주민 중심의 활용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마을 활성화의 혜택이 어떤 형태로든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외지 방문자들에게 종속되는 민속 문화가 아니라 외지 방문자들이 마을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야 하기에 더욱 마땅히 요구되는 일이다.

2)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애로점

마을의 진정한 자원들은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나 마을의 자원을 빠짐없이 발굴해내어 모두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렵다. 그중에서도 해당 마을의 특색 있는 자원을 선택하고 강조해야 한다. 다른 자원들은 선택된 자원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마을 자원의 활용설계에 따라 해당 국면마다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마을의 자원들 중 소득 창출이 가능한 것이 최우선으로 선택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공동체의 유지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경제적 목적의 마을 자원은 그 아래로 배치될 수 있다. 사실 경제적 목적이나 공동체의 형성 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각각의 영역이 조화롭게 배치되어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의 중심 지역은 대개 농·어·산촌이다. 마을 단위 정부사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부 보조사업이 중앙의 편의 위주로 계획되고 농가 개별보조에 치중하여 부실을 초래하고 성과가 미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안중현, 2009: 17). 따라서 앞으로는 개별 보조 외에도 마을 자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마을은 어떻게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마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생산해 내고 유지시켜온 삶의 문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또한 지속적으로 전승되어야 한다. 꾸준한 사업전개만이 소득 창출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과 일상이 연결되

어야 할 것이다. 마을 자원에 대한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도 존중되어야 한다. 자원에 대한 인식이나 사실관계 확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단기간의 소득 창출 콘텐츠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마을 자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소득창출 자체가 마을을 활성화시키지는 않는다. 소득창출은 마을활성화에 따라오는 부가적 가치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다.

이미 김재호가 소득창출에 혈안이 되어 변질되는 마을 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마을 만들기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을 비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마을이 종속적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그린투어리즘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수적 성과물인데도, 한국의 2000년대 그린투어리즘은 본래의 그린투어리즘과는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농촌의 자연, 문화, 역사가 갖는 가치를 어떻게든 보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린투어리즘의 정신인데, 한국에서는 이들을 보전하거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노력들보다는 오히려 농촌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모두 농산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이 그린투어리즘의 주요한 핵심적 내용이 되었고, 그린투어리즘에서 원래 추구하던 농촌과 농업이 갖는 보전 가치는 사라지고 도시인들을 상대로 한 교환가치로서 상품 가치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용어조차도 농산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차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김재호, 2009: 183~184).

현실에서 사정이 이러하니 보다 원형적이고 주민들의 심신에 이

미 내재되어 있는 마을 자원에 대해 탐구해야 하는 절박함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마을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 것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타자화 시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을 만들기가 오직 경제논리에 의해 재단되고 평가받아서는 곤란한 일이다.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을 만드는 데 민속 문화가 분명 장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조화로운 결합에 애로점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애로점은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부재, 민속 문화의 소멸과 변화, 민속 문화와 소득창출의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재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경우 20세기 들어 식민지 경험과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전승되어 온 민속 문화의 단절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민속 문화를 창출한 주민들이 역설적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부정하는 타자화까지 진행되었다.

민속 문화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미신으로 간주되어 타파의 대상이 되어 버릴 정도였다. 다가오는 새 시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가가 새롭게 유포하고자 하는 통치이념에 맞지 않을 경우 가차 없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이룩하고 전승된 민속지식은 근거 없는 직관(直觀) 취급을 받거나 단순한 관습 또는 인습으로 전락한 것이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옛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둘 만한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게 된 점이 분명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속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거나, 인식부재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둘째, 민속 문화의 소멸과 변화이다. 민속 문화는 늘 변화해왔다. 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새롭게 형성되었다. 소멸된 민속 문화는 왜 그리 되었는지, 변화한 것에는 어떤 시대적 담론이 담겨 있는지,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는 어떠한 추동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할 일이 덧붙여졌다.

예전 비교적 단일 사회였을 때의 민속 문화 원형이 다원화 된 현재의 마을 특성에 맞는 지도 불투명하다. 자칫하면 고답적이고 지루한 원형논쟁으로 흐를 소지도 다분하다. 마을의 주민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민속 문화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서 자치조직 간의 소모적인 싸움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 민속 문화 발굴과 자문, 활용방법에 있어 마을 내 조직이나 세대 간에 그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멸과 변화 속에서 공동체 문화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지도 궁금한 사항이다. 즉 현재의 삶과 민속 문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부를 파악하는 일도 상당한 애로점이다.

셋째, 민속 문화와 소득창출의 함수이다. 민속 문화를 마을 만들기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립형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이다. 경제적 효과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이 마냥 이상적이기만 한 마을 만들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속 문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그 효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민속 문화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해야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매우 많은 인내력과 활동력을 요구한다. 다행히 유사사례가 거의 없는 매우 특징적인 민속 문화이거나, 현실의 삶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

접적으로 여전히 행하고 있는 소재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특징적 요소가 없거나 그 마을의 특성으로 부각시킬 만한 고유의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에 평상시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민속 문화는 따로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만약 사라진 문화일 경우 물리적인 복원의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면, 더욱 지난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기(禁忌)를 동반하는 특정한 민속 문화 자원이라면 그 활용에 더욱 애를 먹을 수 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반목과 갈등의 소지가 되어 버릴 가능성까지 있을 정도이다.

민속 문화는 소득창출의 직접적인 기제일 수도 있다. 가령 잘 다듬어지고 전승된 어떤 하나의 축제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광객을 얼마든지 끌어 모으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속 문화는 오히려 그 밑바탕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더 많다. 설사 잘 ‘팔리는’ 민속 문화 자원이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고민 속에 다듬어져 왔다. 당장 현실의 자본으로 바뀌지 않고 대부분 상징으로 작용하는 민속 문화의 속성 때문에 그간의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3)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 가능성

제주의 민속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를 크게 생업민속 문화와 생활민속 문화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전자의 생업민속 문화는 삶을 직접적으로 연명하는 생업수단으로 창출된 문화로 하고, 후자의 생활민속 문화는 직접적인 생업을 제외한 일종의 풍속이라고 설정해둔다. 다소 자의적인 구분인 측면도 있으나 민속 문화의 가능성 검토라는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감안하여 일단 두 가지로 구분

하여 본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 범주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생업과 생활로 나누어 본 이유는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해결하면서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역시 잘 드러날 수 있는 범주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속지식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분야이기도 하다.

생업민속 문화는 생업활동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자연히 농업과 어업, 수렵·목축의 민속 문화가 녹아 있다. 이른바 밭, 바다, 산의 민속 문화이다(고광민, 2004). 생업은 개인적인 활동이면서도 공동체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협동작업이기도 하다. 제주의 농업은 화산섬이라는 거친 지형을 일구어 온 지난한 역사의 과정이었다. 논농사 지대가 아니라 밭농사 지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제주의 어업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써 바다에 대한 적응과 이해에서 출발하였다. 어로기술과 해녀의 물질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한편 수렵과 목축은 드넓게 펼쳐진 한라산의 자원을 이용한 문화였다. 한마디로 제주의 생업은 화산회토(火山灰土), 바다, 한라산이라는 3가지 요소와 더불어 이룩된 삶의 방식이었다. 여기에 ‘바람’과 비교적 ‘온난한 기후’ 등의 풍토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생활민속 문화에는 여러 풍속과 민간신앙의례, 전승물(구비전승, 행위전승) 등이 담겨 있다. 생활민속 문화는 생업활동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생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풍속이 생겨나기도 하고 민간신앙의례도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전승물도 마찬가지다. 전승물에는 구비적 전승과 각종 행위적 전승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비전승에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고된 삶의 희노애락을 언어적 표출로 담아낸다. 소위 행위전승은 넓은 의미의 민속놀이와 예능이라고 할 수 있어 삶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생활민속 역시 개인적 이면서 공동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우선 풍속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세시풍속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 이전 자연의 순환주기인 세시를 따라 가장 적절한 생활방식을 만들어놓았다. 생업력(生業曆)을 바탕으로 세시풍속에는 음식, 주거, 속신, 금기, 일상의 모든 차원이 정연하게 배분되었다. 이런 풍속은 현재에도 그 일부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일생의례(一生儀禮) 등도 훌륭한 자원이다. 하나의 인간이 그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쳐 가는 일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공통되면서도 지역과 공동체의 문화를 드러내는 좋은 소재가 된다. 풍속은 늘 변화하기에 시대별 담론이 응축되어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

민간신앙의례는 공동체의 의례와 개인의례로 나눌 수 있다. 소위 당굿과 포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례는 자연마을의 연대를 꺾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다. 또한 잠수굿과 같이 생업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의례도 있어 개인과 마을공동체의 사이에서 그 독특함을 더한다. 개인의례는 가정신앙이 대표적인데 한 집안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해마다 반복된다. 민간신앙의례 역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부침이 심하였는데 끈질기게 이를 사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돋보이는 민속 문화이다.

전승물은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민속 문화이다. 구비전승은 신화, 전설, 민담, 노래, 수수께끼 등의 언어전승으로 그 생명력이 매우 질기다. 문자로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왔다. 생업의 고단함을 덜고 공동체를 일깨우며 민간의 해학과 지혜를 은유와 상징으로 풀어내었다. 민속 놀이와 예능 등의 행위전승 역시 오락과 유희, 예술성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몸으로 부대끼며 공동체를 유지해 온 지혜가 담겨 있다.

각각의 민속 문화는 지역적 범주인 '마을'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제주의 민속 문화는 생업과 생활이 한데 어우러지고 마을이라는 지역이 상호 결합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 제주의 민속 문화 자원을 발굴할 때에는 생업과 생활, 마을의 모든 측면에서 고루 작동하는 기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마을은 그 크기를 달리 가늠할 수도 있다. 가장 작은 자연마을 단위에서부터 좀 더 넓은 지역공동체로 확장할 수도 있다. 생업권역, 생활권역, 신앙권역, 행정권역, 혼인권역 등은 좋은 예이다. 현대로 들어 점점 확장되는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민속 문화가 좁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4) 제주 민속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결합

제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마을의 민속 문화가 주요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았다. 제주의 민속 문화는 하나의 자연마을에서부터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중간적인 공동체, 제주 전체를 포괄하는 대공동체로 그 규모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의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민속 문화에 대한 선택과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하나의 자연마을 규모로 한다면 그 마을의 특성이 살아나는 세밀한 민속 문화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제주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의 문화권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단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마을’이 적당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동일한 민속 문화의 범주로 엮기에 가능한 중간 규모의 공동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떤 하나의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면 해당 마을에 가장 적합한 민속 문화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김재호가 제시한 것처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발굴해야 한다. 물론 마을 만들기가 민속 문화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선택된 다른 자원들과의 조화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마을의 여러 자원을 잘 검토하고 여기에 적절한 민속 문화 자원까지 곁들이는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을의 민속 문화를 선택하려면 우선 마을의 민속 문화에 대한 조사와 수집,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발간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참여해야 한다. 남녀를 불구하고 마을 원로들의 제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자료로 남겨두어야 한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을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을 내 초중등학교와 연계해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남녀노소를 포함한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속 문화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민속 문화를 다시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해도 좋을 듯하다. 앞서 제시한 생업민속 문화와 생활민속 문화를 바탕으로 주제별이나 행위자별 등으로 다시 범주를 설정하고 재배치할 수도 있다. 하나의 범주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범주를 연합하여 사업화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마을 만들기에서 민속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기로 하자. 단편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만들기의 단계를 준비, 기초, 자원의 선택, 실행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기로 한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마을의 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모든 주민들의 평등한 의견개진 보장이 요구된다. 마을을 만드는 목적이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모든 주민이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형성과 활력을 통해 점차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는 매우 느리고 지속적인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과만 있고 사회문화적 의미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또한 마을의 자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누구나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보면 자신들의 문화를 자원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평범하고 별거 아니라고 여겨 눈길을 돌릴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 무언가 특이하다거나 문화재 등의 국가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시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외부인의 시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민 스스로도 늘 주위를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을은 이미 보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민들은 진작 보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자연마을은 보통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원로들의 발언권이 드센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일정한 권위는 당연히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 만들기를 이들이 전부 해낼 수는 없다. 마을을 재창조하는 것은 남녀노소와 친구세대 간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성 원로, 남녀 젊은이, 청소년, 어린이 등도 활발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성 원로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 역시

소중한 것이며, 남녀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을 만드는 일꾼들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만들어진 마을을 앞으로 더욱 가꾸고 지속시킬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내야 한다.

(2) 기초단계

기초단계는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순서이다. 해당 마을에 대한 조사와 수집, 연구와 분석, 마을 내 교육과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1차적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첫째, 조사와 수집을 위한 일들을 살펴보자. 조사와 수집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지향한다. 우선 기존의 자료를 정리한다. 마을 내에 남아 있는 유형·무형의 여러 민속 문화자원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학술적으로 조사한 뒤 발간된 자료도 참고한다. 그 다음은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2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조사의 대상은 마을 주민이다. 먼저 남녀 원로들에 대한 제보를 확보한다. 구술이나 시연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 이를 영상, 사진, 음원 등의 여러 가지로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다시 마을의 자원을 두루 살피는 2차 추가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기존의 1차 조사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변화한 삶을 반영하는 일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마을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1·2차 조사를 통해 모인 자료들은 마을 내 특정 시설에서 잘 분류하고 보관한다.

둘째, 연구와 분석이다. 조사된 자료를 한데 모아놓고 자신의 마을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말한다. 소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을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자원도 있을 것이고, 중공동체나 대공동체 범위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민속 문화자원도 있을 것이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안팎의 시선을 모아 어떤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지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

셋째, 마을 내 인식 확대와 주민활동의 활성화이다. 조사와 수집, 연구와 분석을 거친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우선 마을의 자원에 대한 지도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이 지도는 마을자원과 공동체의 활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인 구성으로 제작한다. 이를테면 마을의 전래 지명이나 지형을 활용하여 실제 거주모습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든지, 마을의 유형·무형자원과 광장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 역사와 일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한다. 게다가 해안마을일 경우는 바다밭, 원담 등의 구역도 지도에 표시하며, 중산간 지역일 경우에는 잣성과 목장·방목지 구역 등의 표시도 가능하다. 현대화된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곳에는 해당 환금작물을 상징화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도 자체가 훌륭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주민에게 배포하고 주민들부터 스스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한다.

지도가 작성되는 것과 함께 마을의 자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이 나와야 할 것이다. 1차와 2차 조사를 망라한 전체적인 자료집을 우선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게 다양한 수준의 자료집도 발간해야 한다. 세대와 지식수준, 활용목적, 수용자 등에 맞게 수록내용과 수록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료집은 마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쉽게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관내 교육시설과 협력해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정규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외부 방문자에게도 적절한 자료집을 배포하여 접근 기회를 넓힌다. 마을 홈페이지 같은 홍보수단에도 자료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마을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과의 연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마을 자원을 친숙하게 여기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더불어 성인도 경우에 따라 교육시설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이야기하며 더불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일종의 부드러운 사랑방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담론과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벼운 이야기에 서부터 진지한 의사결정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와 관련해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다무라가 소개하는 ‘요모다(よもだ) 주쿠(塾)’라는 사례가 재미있다. 이카자키(五十崎)라는 마을은 산간에 있는 평범한 농촌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1983년경에 술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가메오카 아키라(亀岡徹)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요모다 학원을 만들었다. 가메오카는 마을 부흥을 위해 우선 언어를 되찾자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접근하여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요모다 학원은 그날그날 모인 사람들이 학생이 되는 유동적인 열린 학원이다. ‘가메오카씨네 가서 요모다(이야기) 좀 할까’라는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밤늦게 자발적으로 모여 맛있는 커피 등을 마시고 부담 없이 이야기 하면서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을 만들기가 되는 것이다. 이 학원에는 ‘요모다 정신’이 있다고 한다.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숨겨진 비판적 정신을 품고 있으며, 여유 속에서 즐기며 느긋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만치 않은 실천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모인 사람들이 즐길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마을 만들기이며 이를 지속하는 동안에 뜻밖에 무언가를 이루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래의 촌락적인 모임이 아닌, 주체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모인 마을적인 모임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민적인 연결이라고 한다(다무라 아키라, 2008: 16~20).

(3) 자원의 선택 단계

마을의 다양한 민속 문화 자원 중에서 마을 주민들의 합의를 거쳐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가능하면 현재도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고 세대 간에 계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생태, 자연경관, 역사자원 등 다른 자원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요소도 마땅히 고려해야 한다. 마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한다면 외부 방문자들의 시선을 보다 잘 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선택된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형태도 결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마을 만들기의 양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을을 만드는 것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린투어리즘, 에코뮤지엄, 축제관광 등 다양하다. 이들은 서로 공통점도 많은데 구체적인 초점을 어디에 맞추어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체험적인 요소에 맞출 수도 있고, 지역 자체를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인식하는 에코뮤지엄 형태로 갈 수도 있다. 어떤 특정한 마을 축제 등을 소재로 틀을 짤 수도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마을 만들기 형태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선택된 해당 자원의 성격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설계방향을 잡을 수 있다.

(4) 실행단계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이다. 마을 만들기의 실행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로나 건물 등의 기반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선택된 마을 자원은 소프트웨어이다. 하드웨어는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때 하드웨어 건설은 소프트웨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홍보와 관련 행사의 유치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여러 요건을 갖추고 마을 만들기가 시행된다면 이제 그 선택자원이 해당 마을의 브랜드가 된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마을의 얼굴이 되는 셈이다. 마을의 성격을 규정하는 소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면 차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립형 공동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마을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주체들과 프로그램들을 상설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feedback)도 실시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제주의 민속 문화를 자원으로 하여 진정한 ‘마을 만들기’의 미래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주의 마을 만들기 현황과 양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제주의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을 만들기의 중요 자원으로서 민속 문화의 의미와 마을 만들기 과정에서 민속 문화가 드러내는 애로점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 문화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실제 민속 문화와 마을 만들기의 가능성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시론적이나마 서술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내방객의 조화로운 공존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민 처지에서는 ‘살기 좋은’ 또는 ‘살고 싶은’ 마을이고, 내방객은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또는 ‘재충전이 되는’ 일종의 여행지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이 내방객에게 종속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살고 있는 주민들 속에 내방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 내방객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주민들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존재하며 전승되는 것이지 내방객의 주문에 따라 때때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에는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의 자원 가운데 민속 문화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소재이다. 민속 문화 자체가 합의의 산물이다. 자연과 인간의 합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합의의 결과물이다. 적응과 부적응,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문화는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역동성 속에서 사람들은 한 지역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왔다. 역동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지식이 축적된 것이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었다.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문화의 숨결 속에 희노애락이 다양하게 남은 것이다.

민속 문화의 역동성은 양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민속 문화를

발굴하고 가꾸어 가는 마을 만들기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의 심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하드웨어로는 결코 이를 이룰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애로점도 분명히 있다. 마을 만들기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새롭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 갈 마을의 민속 문화를 아무런 갈등 없이 단시일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공동체의 문화가 소중한 이유는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며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문화가 오랜 역사를 거치며 갖은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현재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바로 끈질긴 자생력 때문이다. 민속 문화를 이용한 마을 만들기 자체가 어찌면 당대에 벌어지는 담론투쟁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 경제효과 일변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항하는 일종의 진지한 도전이기도 한 셈이다.

참고문헌

-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서울: 대원사.
- 김재호, 2009, “마을 만들기 정책사업 비판 : 철학 없는 그린투어리즘 (green tourism)”,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가」 (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원 민속학연구소), 서울: 민속원.
- 김재호, 2008, “마을 만들기와 마을민속의 활용방안”, 「한국민속학」, 48: 30~32, 한국민속학회.
- 다무라 아키라(田村明) 지음, 강혜정 옮김, 2005, 「마을 만들기의 발상」, 서울: 小花.
- 다무라 아키라(田村明) 지음, 장준호·김선직 옮김, 2008, 「마을 만들기 실천」, 서울: 형설출판사.
- 안종현, 2009, 「주민과 함께 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경기: 한국학술정보.
- 오하라 가즈오키(大原一興) 지음, 김현정 옮김, 2008,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 : 에코뮤지엄 기행」, 서울: 아르케.
- 조동일, 2008,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7」,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Abstract

Folk Culture of Jeju and Village
Making(Maeul-mandeulgi)

Heo Namchoon* · Kang Sojeon**

This paper examines folk Culture of Jeju and 'Village Making'(Maeul-mandeulgi). Main resource of Village Making is folk culture. First, this paper observed simply about folk Culture of Jeju and Village Making present condition and aspect. Then, we observed about relation of Village Making with Jeju's folk culture. Folk culture is important resource of Village Making, and has all good meaning and difficult problems. Nevertheless, folk culture is a resources which make it possible to practice by village inhabitants. We described about possibility and process of Village Making with folk culture. We think that it is important that take advantage of resource which can do by inhabitants. This is way that Village Making succeeds. Folk culture among resource of the village is dynamic. To use folk culture in resource of Village Making, endurance and agreement of village inhabitants are important. Folk culture is essential element of Village Making.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Lectur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Jeju, folk Culture, Village Making(Maeul-mandeulgi)

교신: 허남춘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hnc423@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4. 5. 10.

수정완료일 2014. 7. 10.

게재확정일 2014. 8. 10.